

# 영암군, 경로당 협업작업장 확대...맞춤형 일자리 제공

16곳 확대 운영...도내 시군 1위  
어르신 소득 창출·사회 참여 보장  
왕인문화축제 연계 판로전 확보  
‘친환경·내실화’ 정책 방침 원년



영암군이 지역 어르신들 사회 참여와 소득 창출을 위해 '경로당 협업 작업장'을 확대 운영한다. 사진은 어르신들이 협업 작업장에서 다육식물을 재배하고 있는 모습. <영암군 제공>

영암군이 경로당을 기반으로 한 협업작업장 운영을 대폭 확대하며 지역 어르신들의 든든한 사회 참여와 소득 창출을 동시에 이끄는 선도적인 맞춤형 일자리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22일 영암군에 따르면 2024년 5곳에 불과했던 경로당 협업(공동)작업장을 올해 총 16곳까지 늘려 운영한다. 이는 기존 대비 313% 급증한 수치로,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압도적인 1위 규모를 자랑한다. 이번 사업은 도비 지원 6곳에 더해, 군 자체적으로 고향사랑기금 6천2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총 1억여원 규모의 예산으로 추진된다. 특히 출향민들의 애환심이 담긴 고향사랑기금을 어르신 복지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사회 내 선순환 구조를 확립했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단순한 여가활동이나 휴식 공간에 머물렀던 경로당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활기찬 경제 거점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하게 된다. 군은 일방적인 시혜성 복지를 넘어, 어르신 스스로 경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물론이고 약화돼 가는 지역 공동체 의식까지 촘촘하게 복원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각 작업장에서는 보리수 발효식품 생산부터 수의 제작, 꼼꼼한 엄마 손뜨개, 편백 힐링 공방, 다육식물 재배 등 지역 특색을 살린 다채

로운 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무엇보다 군은 올해를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원년으로 삼고 '친환경 및 내실화'에 정책의 방점을 찍었다. 이끼를 활용한 테라리움 만들기, 예코 어르신 놀이터, 폐지 등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공예품 제작 등 최신 트렌드에 발맞춘 자원 순환 기반의 특성과 프로그램을 배치해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굳건히 다지고 있다. 생산된 제품들의 안정적인 판로 개척과 마케팅에도 행정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군은 오는 4월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열리는 영암 왕인문화축제 기간에 어르신 참여 부스를 운영해 대대적인 판로전에 나선다. 1일 근무제를 체계적으로 편성해 작업장 생산품을 관광객들에게 직접 전시하고 판매하며, 현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병행할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경로당 협업작업장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역할을 찾고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지원과 특성화 전략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이 가능한 모범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 “제주항공 참사 후 행정 책임있는 자세 필요”

무안군, '공직 신뢰의 재건' 강연회  
홍봉주 변호사 "관행적 타협" 지적



무안군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를 교훈 삼아 해이해진 공직 기강을 다잡고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성의 시간을 가졌다. 22일 무안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에서 홍봉주 변호사(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를 초청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공직 신뢰의 재건'을 주제로 황도팔차치마당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강연회에서 홍 변호사는 공공 행정을 지탱하는 4대 핵심 축으로 원칙, 전문성, 개방성, 공감을 제시했다. 특히 무안국제공항 내 방치된 콘크리트 구조물 문제를 공직사회의 치명적인 '관행적 타협'으로 지적하며, 사소한 원칙 훼손과 안일함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했다. 이어 전문성 결여에 대한 비판의 수위도 높였다. 그는 "항공 안전과 같은 특수분야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이 이뤄지는 것은 단순한 실무적

착오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직무유기"라며 "사고 발생 이후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태도가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의 불씨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책임 있는 자세만이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처방전이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홍 변호사는 "공항 내 콘크리트 둔덕 제거가 단순한 시설 보수를 넘어 공직사회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역설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원칙이 바로 선 책임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으며, 이호성 무안군의회 의장은 "작은 원칙을 지키는 정직함이 지방자치의 근간"이라며 군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 활동을 다짐했다. /무안=김성호 기자

## 함평군, 추경 564억 증액...민생 현안 사업 '집중'

총 5천972억원 규모 편성  
재난 예방·지역 활력 제고

함평군이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민생 현안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22일 함평군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대비 10.44%(564억원) 증가한 총 5천972억원 규모의 '2026

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22억원, 특별회계 42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이번 추경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 필수 사업 위주로 꾸려졌으며, 군민 생명과 직결된 내교기 각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64억5천만원)와 신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25억원) 등 재난 예방 및 생활 환경 개선에 예산을 우선 반영했다. 아울러 월야면 도시재생사업(24억7천만원)

과 지역 화폐인 함평사랑상품권 지원(17억7천만원), 함평 스포츠타운 조성(33억2천만원) 등 지역 인프라 확충과 소상공인 지원,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재원을 할고루 배분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이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군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함평군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9일 최종 확정된다. /함평=김영규 기자

## 해남 일손 부족 해소 벼 못자리 상토 지원

30억 투입 1만여ha...고품질 쌀 생산 목표

해남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가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벼 못자리용 상토 공급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22일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급 단가 인상을 적극 반영해 관련 사업비를 지난해보다 2억원 증액한 총 30억원으로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직파 및 무논점파 등 못자리가 필요 없는 방식을 제외한 관내 전체 벼 재배 면적 1만8천461ha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육묘 단계부터 우량 상토를 지원해 쌀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작업 공정을 줄여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앞서 군은 지난해 농가 대표들이 직접 참여하는 심의회를 열고 공급 업체를 투명하게 선정했으며, 각 농가로부터 일반·친환경 상토 신청 접수를 마쳤다. 본격적인 영농철인 이달 말까지 전체 물량 공급을 차질 없이 완료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시름이 깊어진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을 확대했다"며 "못자리 단계부터 철저한 지원에 올해도 해남 들녘에 풍년이 깃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 “슬픔 속 꺼낸 쓴소리”...목포 공무원 호소글 화제

시, 전문성 무시 인사 관행 비판  
동료 공무원들 지지·공감 쇄도

목포시 소속 한 공무원이 자녀를 가슴에 묻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공직 사회의 낡은 인사 관행을 꼬집고 쇄신안을 제시해 화제가 되고 있다. 22일 목포시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달 초 아들을 떠나보낸 공무원 A씨가 노조 누리집에 올린 장문의 글이 최근 조회수 1천800여회를 돌파하며 공감을 얻고 있다. A씨는 게시글을 통해 소수 직렬 배려는 명목하에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복수 직렬화 현상을 비판했다. 최초 임용 당시의 전문성과 무관하게 시설, 행정, 보건, 전산직 등이 교차 배치되면서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잃고 단순 근로자로 전락해 조직 발전마저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1990년대 채용된 전산·통신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3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조직 내에서 충분히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인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타계책으로 복수 직렬 최소화를 통한 단수 직렬화, 임용 직렬 중심의 부서 배치,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배정과 전문 인력 전면 배치 등을 제안했다. 개인적인 상실의 아픔을 딛고 용기를 낸 이번 호소글에 동료 공무원들은 "지당한 말씀이다", "조직을 위한 용기 있는 발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뜨겁게 호응했다. 이어 "우리 스스로도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변화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실명 공개의 부담을 감수한 것을 두고 "후배들을 위한 진정된 용기"라는 릴레이 지지 댓글이 쏟아졌다. /목포=정해선 기자

## 신안군 '4분의 기적' 응급처치 순회 교육

신안군은 22일 "응급 상황에서 군민들의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23일부터 14개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2026년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안소방서와 연계해 총 16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행동 요령, 올바른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하임리히법 등 실생활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습 위주로 꾸려졌다. (사진) 특히 보건교사 등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필수 교육을 이수할 수 있어, 지역 내 촘촘한 응급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든다. 김현희 보건소장은 "이번 순회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가족과 이웃의 생명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권 보호와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홍기 기자

## 강진농관원, 농업인 편익 증진 유관기관 협의회

공익직불금 효율 운영 논의

강진 지역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 정비와 공익직불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관 기관들이 협력에 나섰다. 2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강진 사무소(이하 강진농관원)에 따르면 최근 강진군과 한국농어촌공사, 11개 읍·면 공익직불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농지대장 입대차 불일치 정비를 비롯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업경영체 등록 및 공익직불사업 개정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강진=정영록 기자

더불어 직불금 감액 우려 농지 사전 조사 안내, 의무 교육 이수율 제고, 전라작물직불 이행 점검 등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했다. 강진농관원과 강진군은 공익직불제 합동조사반을 전격 편성해 실제 영농 여부와 의무 준수 사항 실천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 직불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관련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영성 강진농관원 사무소장은 "농업인에게 한 차원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의 공조를 굳건히 다지겠다"며 "농가에서도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의무 준수 사항을 철저히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진=정영록 기자